

Acetone, 85만-87만원으로 하락

공장가동률 하락으로 2만-3만원 떨어져 ... 두산상사 가격결정

10월 초 Bulk 톤당 90만원에 거래될 것으로 보였던 Acetone 가격이 톤당 85만-87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9월 80만원 후반에 거래됐던 Acetone은 국내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기업들의 공장가동률 하락으로 톤당 2만-3만원 하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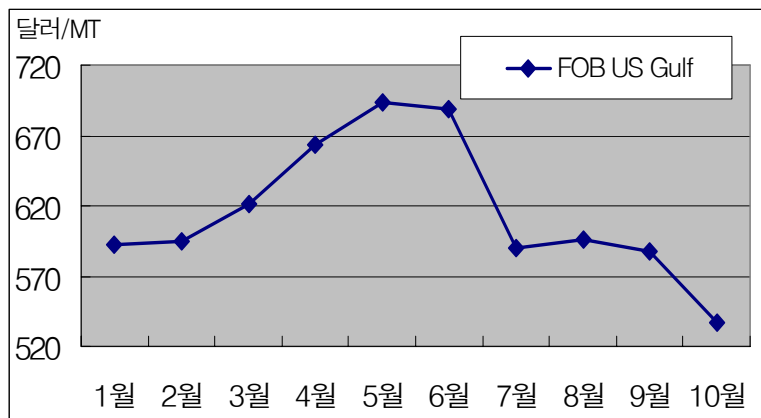
국내 유일의 Acetone 메이커인 금호P&B화학 관계자는 “9월 Acetone 가격이 80만원 후반에 거래돼 10월 가격인상을 시도했으나 금호P&B화학 생산제품을 공급하는 일부 대리점과 딜러들의 과당경쟁 및 수입품의 저가 공세에 밀려 9월 가격보다도 오히려 떨어졌다”고 밝혔다.

Acetone 시장 관계자는 “Acetone은 톤당 83만원에도 공급되고 있는 것은 두산상사가 국내시장 확보를 위해 Mitsui Chemicals 생산제품을 들여와 저가공세를 펴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두산상사 관계자는 “두산상사가 월초에 가격을 결정해 월중 가격변화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할 때 저가로 공급되는 것에 불과하고 정책적 차원의 저가 공급은 아니며, 예측에 따라 시중가격보다 높게 공급될 때도 있다”고 강조했다.

다른 Acetone 시장 관계자는 “금호P&B화학이 고가정책을 펴고 있는 가운데 시장가격이 정상가로 회복되는 추세”라고 전했다.

Acetone 가격추이(2003)



10월 Acetone 국내 통관가격은 톤당 570-575달러이며, Acetone 국제가격은 FOB US Gulf 톤당 1월 593달러, 2월 595달러, 3월 621달러, 4월 664달러, 5월 694달러로 꾸준히 상승했으나 6월 689달러, 7월 590달러로 하락한 뒤 8월 596달러, 9월 587달러로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국내 Acetone 메이커는 금호P&B화학이 유일하며, 2003년부터 Bisphenol-A 생산량 확대로 수입을 통해 Acetone을 공급하고 있다.

금호P&B화학의 영업방식은 직접방문과 대리점을 통해 Acetone을 공급하며, 두산상사는 일본 Mitsui 제품 월평균 300-400톤을 Dealer들과 주로 거래하고 있다. 금호P&B화학의 대리점으로는 삼성물산, 삼영무역, M케미칼스, OCI상사가 있으며, 주요 수요기업으로는 송원산업, SK케미칼, 제약기업 등이 있다.

<Chemical Journal 2003/11/07>